



제목	Iran in World Histor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5. 12. 1.
저자	Richard Foltz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176
ISBN 또는 ISSN	978-0199335497

**내용 요약**

이 책은 지중해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양, 중국까지 다양한 인종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란 문화를 추적하는 글이다. 저자는 무엇이 세계사인가? 6천년의 역사를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이란/이란인들이 그 역사를 어떻게 형성해왔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저자의 해답은 연결성과 상호작용이다. 현재 이슬람 공화국의 경계선을 넘어선 이란 문명의 확산이 이란 고유의 역사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저자는 이란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규범의 확산을 통해 세계사 형성에 기여한 공헌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정치사 서술 중 시점이 다른 사건들을 섞은 설명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령 카자르조의 무능과 팔레비조 등장을 설명하면서 이란의 초기철기 유물인 로레스탄 청동품(Lorestan bronzes)에 대한 지배권 상실을 첨가하였다.

저자는 언어, 땅, 공유의 기억을 이란 문화를 이해하는 3가지 핵심어로 꼽았다. 1장 “땅과 언어의 결합”은 이란의 땅과 사람, 언어의 형성에 관해 설명하였다. 2장 “이란과 그리스인”, 3장 “파르티아인, 사산조인, 소그디아나인”은 기원전 550년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과 이란 지역의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담고 있다. 4장 “이슬람의 이란화”는 이슬람에게 정복되었지만 이란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을 그렸다. 5장 “투르크인”은 페르시아 문화가 변형하는 상황을 적었다. 6장 “유럽의 그림자”는 유럽의 이란 간섭, 서구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7장 팔레비조 시기의 “근대화화 독재정”, 8장 1979년에서 현재까지의 설명은 이란의 문화적 개혁과 확산, 서구와의 갈등을 담고 있다.